

産 業 資 源 部

産 業 資 源 部

1. 總 括

지시사항 건수		완 료	관리종결	추진중		미 착 수	비 고
				정 상	부 진		
총 계	44	25	1	18	-	-	-
단독주관사항	19	10	1	8	-	-	-
공동지시사항	25	15	-	10	-	-	-

2. 指示事項 目錄

○ 完了事項

일련번호	코드번호	지 시 제 목	완료연월일
8	03-41-01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리방향 설정	1998. 4. 8
72	03-41-04	교역량 확대하에서 무역수지흑자 달성	1998.12.31
75	03-41-07	산업자원부 역할 강조	2001. 6.30
79	03-41-09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1999. 2. 5
114	03-41-10	KOTRA의 원스톱서비스체제 강화	1999.12.31
161	03-41-12	수출증대를 위한 철저한 대비책 수립	1999.12.31
177	03-41-13	APEC 투자박람회 준비 철저	1999. 6. 5
179	03-41-14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여건 정비	2000.12.20
257	03-41-17	민간분야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지원	2001.12.31
325	03-41-19	제조업과 지식정보산업의 병행 발전	2001.12.31
10	03-70-01	부처별 실업대책 추진	2000.12.31
13	03-70-02	ASEM 외국인투자유치 후속조치 준비	1998. 9.16
48	08-70-03	경제정책 관련 대외홍보 강화	2000.12.31
137	03-70-08	각 부처의 경비절감노력 강화	1999.12.31
138	08-70-09	수해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1998.10.10
159	03-70-16	경제회복대책의 실효성 확보 노력강화	73과 통합
164	07-70-15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	2000. 2.29
175	08-70-16	공정한 인사행정	1999.12.31
282	03-70-29	내년도 과제의 대국민 홍보	2000. 2.29
304	303-70-32	각 부처 개혁방안 보고	2000. 2.16

일련번호	코드번호	지 시 제 목	완료연월일
366	09-70-39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2000.12.20
383	03-70-42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2000.11.18
384	03-70-43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준조세 경감	2001.12.31
392	03-70-46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의 차질없는 추진	2001. 4.30
526	05-44-23	물절약 대책 강구	2001. 6. 7

▲ '98 - '00년 완료사항은 「1998년 - 2000년도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상황」 책자 참조요망

○ 管理終結事項

일련번호	코드번호	지 시 제 목	비 고
217	03-41-15	중소기업 유희설비의 북한 및 해외이전 추진	

○ 推進中인 事項

일련번호	코드번호	지 시 제 목	비 고
30	03-41-03	중소기업 지원	정상
73	03-41-04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강화	"
74	03-41-06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등 행정개혁 강화	"
76	03-41-08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
152	08-41-11-②	대형사고 예방노력 강화(철저한 가스안전대책 수립)	"
218	03-41-16	밀라노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	"
355	03-41-21	무역수지대책 수립	"
420	03-41-24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	"
113	03-70-07	재계와의 협력 강화	정상
157	09-70-12	방일 후속조치 철저	"
264	08-70-25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276	08-70-27	8.15경축사 후속대책의 철저한 실천	30과 통합
298	03-70-31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	30과 통합
386	03-70-45	공기업 감사결과에 따른 철저한 개선	정상
397	03-70-48	공공부문 노사분규에 철저대비	"
407	07-70-52	국가적 중요기술의 개발계획 수립	"
422	08-70-51	인사청탁 근절	"
525	06-70-58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 철저	"

3. 完了指示事項

1) 産業資源部 役割 強調 : 75(03-41-07)

가. 指示內容(1999년 6월 26일, 산업자원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간의 사이를 잘 연결하여 경제를 이끌것
- 금융·기업구조조정이 끝나면 산업자원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새출발 할 것

나. 措置內容

-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산업조직 재편
 - 창업자금 지원확대 : (99) 7,500억원 조성 → 8,431억원 지원(3,075업체)
 - 『한국벤처투자조합(KVF)』 설치·운영(99. 9)
 - 1,000억원(재정50%, 외국인투자 50%) 규모의 펀드를 설립, 벤처기업 직접투자 및 창업 투자조합 투자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운영
 - 99. 11말 142개 센터 최초 지정 → 현재 240여개 운영중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확대 : (98) 3,442억원(R&D예산의 8.4%) → (99) 4,072억원(R&D예산의 11.7%) → (00) 4,358억원(R&D예산의 13.2%)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개발자금 지원 확대
 - (98) 636업체 322억원 → (99) 845개업체 450억원 → (00) 996개업체 600억원
 - 산학연 컨소시엄 활성화 : 전국 이공계대학 총 258개 대학중 96개 대학 참여
 - (98) 85개 컨소시엄 1,286개사(101억원) → (00) 146개 컨소시엄 1,870개사(210억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계 강화
 -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 00년까지 403개 업체 실태조사 → 226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연이자 지급 등 조치
 - 중소기업과 종합상사간 수출상담회 개최(11월) : 권역별(서울, 광주, 전주, 부산)로 개최
- 지식기반 산업화 Action Plan 수립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99. 1)
 - 주요 업종별 지식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99. 12)
 - 50개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의 지식기반화 실천전략을 작성하여 민간에 확산
 - 산업발전법(2.8)·시행령(5.13)·시행규칙(5.18) 공포 및 시행
 - 주요업종별 경쟁력강화 간담회를 통한 산업별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추진(00.2 ~ 6월)
 - 10대 주력산업 및 신산업·미래산업에 대한 산업별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00.7)
 -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계획 수립(00.4) : 5대부문, 83개 실천과제 추진

다. 事業成果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자금·기술개발자금 지원 및 제도개선등 각종 지원시책 확대 실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산업조직 재편의 틀 마련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협력체제 및 산업의 지식화 기반 구축을 위한 시책의 지속 추진으로 산업자원정책 및 산자부 역할에 대한 신뢰도 제고

2) 民間分野의 研究開發投資 擴大 支援 : 257(03-41-17)

가. 指示內容(1999년 7월 1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 대기업의 여유자금을 R&D분야에 투입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람

나. 措置內容

- 기술거래를 활성화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R&D투자 유인
 -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전문기관을 육성하여 투자촉진, 기술거래가 이루어지는 체제 구축
 - 한국기술거래소설립(2000. 4. 10) : 민간투자 128.5억원 등 178.5억원
 - 기술거래·평가제도의 법적기반마련을 위한 『기술이전촉진법』 제정(2000. 1. 28)
 - 기술거래사 지정기준(2000.10) 및 기술거래·평가기관 지정요령(2000.12) 수립
 - 2001.12월 현재 기술거래사 76명, 기술거래기관 10개, 평가기관 4개 지정
- 기술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민간의 R&D투자 확산
 - 전국 주요대학을 지역기술개발의 요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기술혁신센터(TIC)의 확충
 - 2001년까지 총 29개 TIC 설치
 - 산·학·관 공동연구기반 거점으로서 테크노파크 조성 지원
 - 6개 테크노파크 조성 및 지원 : (2000)150억원, (2001)300억원
 - 산·학·연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고급연구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노력을 강화
 - 초소형정밀기계기술 연구기반구축 등 51개 과제 818억원 지원완료(2001.12)
 - 민간의 R&D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기술이전거래에 대한 50% 소득 감면
 - 테크노파크 등 기술인프라 사업에 지원시 기부금 손금 인정
 - 기술개발투자 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 범위를 전업종으로 확대

다. 事業成果

-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및 기술거래소 설립으로 기술거래 활성화,
-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등 기술인프라 구축,
-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 지원,
- 민간의 R&D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등을 추진하여

⇒ 2000년 민간의 R&D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과학기술부(2001.8.)

(’98) 82,848억원(△11.3%) → (’99) 87,187억원(5.2%) → (’00) 103,967억원(19.2%)

3) 製造業과 知識情報産業의 並行 發展 : 325(03-41-19)

가. 指示內容(2000년 2월 29일, 제9회 국무회의시)

- 최근 제조업의 사기가 낮아지고 주식가격도 정보통신부문에 비해 좋지 않음.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본이 되는 만큼 경제부처들이 긴밀히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 우리가 지식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지만 제조업과 병행하여 발전해 나가야 함. 제조업도 정보화를 통해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나. 措置內容

- 주요업종별로 「산업별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추진
 - 생물, 조선, 반도체, 디자인, 자동차, 부품·소재, 광산업 등 13개 산업의 경쟁력강화 간담회 개최(2~6월)
- 산업발전심의회 개최(7. 14)
 - 10대 주력산업 및 신산업·미래산업에 대한 산업별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계획」 수립에 지식산업 발전과 기존산업의 지식화 부문을 포함하여 수립
 - ‘지식기반 신산업 발전’과 ‘기존산업의 지식기반화’를 위한 총 5대 부문 83개 실천과제 수립
 - 산업부문 정책토론회 개최(3. 11)
- 신산업과 기존 제조업의 균형발전 방안을 수립·추진
 - 주요 산업별 발전전략 수립하여 기존 주력산업과 IT산업 등 21세기 돌파산업의 균형발전 방안 수립
 - R&D 역량 강화를 국가혁신의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 전략 수립
- 신지식인 양성계획의 수립 추진
 - 전자상거래 인력 수급 실태조사 및 인력양성 3개년 계획 수립(11월)
 - 광산업 및 초전도 전문인력 양성기반 및 전문 디자이너 양성 프로그램 구축
-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부품·소재 개발지원 강화
 - 100대 구조적 취약 부품·소재에 대한 국산화 대책 수립(2000 상반기)
 -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기술개발지원 대상과제(52개분야 150여개 과제)선정 (2000 상반기)
 -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 2000 국회 제출

다. 事業成果

- 주요업종별로 「산업별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추진하고, 부품·소재육성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조업 발전의 기반 마련
- 산업전반의 지식기반화 시책의 지속 추진으로 디지털 경제 및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신산업과 기존 제조업의 균형발전 방안 및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수립·추진으로 우리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共通 1) 企業에 대한 規制緩和 對策 : 384(03-70-43)

가. 指示內容(2000년 8월 29일, 제36회 국무회의시)

- 최근 정부와 경제단체간의 대화에서 기업에 대한 인위적 규제가 있고, 준조세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음. 준조세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음. 이는 경제발전의 저해요소임
- 특히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오히려 준조세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음. 이렇게 하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을 것임. 기업인들이 기업을 자유롭게 그리고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나. 措置內容

- 기업의 개혁체감도가 큰 핵심규제의 완화
 - 기업 및 경제단체와 합동으로 개선대상 핵심규제 발굴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에 개선권고(환경관리인 교육방법의 개선 등 7건)
- 민·관 합동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2001.7월~8월)
 - 전국 404개 기업을 대상으로 511건 과제발굴
 - 수용 205건, 수용곤란 156건, 계속검토 50건
-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심사 강화
 - 승강기 검사기준고시개정안등 65건에 대한 규제심사(2001.1.1~12.31)
 - “규제개혁 실무지침” 작성·배포(2001.6월)
- 하위규제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수립(2001.7월)

다. 事業成果

-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 강화
 - 규제영향분석서의 엄격한 심사로 신설·강화규제 최대한 억제
- 하위규제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
- 핵심규제의 발굴 및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개선
-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74.4%, 분야별 전문가의 82.0%가 규제개혁성 과를 인정
 - OECD, IMF 등 국제기관에서도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우리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높이 평가
- ※ 이코노미스트연구소(EIU)는 2001년도 기업환경 종합평가서에서 우리정부의 평가등급 상향조정(Moderate → Good)

共通 2) 4大部門 12大 核心 改革課題의 蹉跎 없는 推進 : 392(03-70-46)

가. 指示內容(2000년 10월 4일, 4대부문 합동보고 회의시)

- 재정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은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들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금융·기업부문 개혁은 연내에, 공공·노동부문 개혁은 내년 2월말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함
 - ▲ 추가지시(2000년 10월 31일, 제44회 국무회의시)
 - 우리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있고 앞으로 몇 개월간이 우리경제에 중요한 시기로
관계장관들은 개혁과제 완결에 혼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임

나. 措置內容

- 사업구조조정(빅딜) 기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 마련
 - 철도차량은 출자전환 및 채권단 부채이관 완료('01.4월)
 - 항공기 통합법인은 주주3사 증자 완료('01.1월) 및 채권단 출자전환 완료('01.2월)
- 공기업 민영화 추진
 - 포철은 정부 및 산업은행 보유지분 완전매각을 통해 민영화 완료('00.10월)
 - 한국중공업은 (주)두산과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및 주식매각대금 납입 완료('01.3월)
 - 한국종합화학은 대주중공업에 매각 완료('01.3월)

다. 事業成果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과잉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하고 업종별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화 기반 마련

共通 3) 물節約對策講究：526(05-44-23)

가. 指示內容(2001년 6월 12일, 제23회 국무회의시시)

- 민·관이 가뭄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일은 물절약
- 공장폐수를 재활용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등 단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나. 措置內容

- 농업용 전기요금 인하 및 전기공사 긴급가설
 - 가뭄대책기간중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 양수시설에 대하여 모든 인력을 동원 전기공사 긴급가설 지원
- 산업단지내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 가뭄극복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에 비상대책반을 산자부·산단공 합동으로 편성
- 발전용댐의 농업용수로의 전환 등
 - 발전용수의 일부를 농업용수로 최대한 공급

다. 事業成果

- 농업용전기요금 인하 및 전기공사 긴급가설
 - 전기요금 약 4,672백만원 경감 및 농사용 관정 전기공사 23,176건 설치
- 산업단지내 공업용수 공급
 -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절수운동 전개 및 용수 재활용 권장
 - 용수다소비 업체 저수조 활용 및 지하수 개발 등
- 발전용댐의 농업용수 전환
 - 화전, 팔당 등 6개소 댐 및 충주, 소양강 등 4개소 댐의 용수를 댐별로 분할·공급

4. 推進中인 指示事項

1) 中小企業 支援(中小企業構造改善資金 支援) : 30(03-41-03)-①

가. 指示內容(1998년 6월 26일, 산업자원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되지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구조개선 자금지원이 부진하다는 것은 문제이니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 추가지시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실업난 극복 (1999년 3월 31일, 중기특위 국정개혁보고서)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성화 대책 강구 (2000년 3월 28일, 중기특위 업무보고서)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실적

(단위:업체,억원)

년 도	신청 · 접수		지원결정		대 출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998년	9,461	35,286	6,892	20,159	5,100	11,781
1999년	2,121	9,233	1,640	6,297	1,925	6,500
2000년	1,975	9,564	1,678	7,535	1,691	7,000
2001년	3,591	17,990	3,074	13,397	2,081	7,830
계	17,148	72,073	13,284	47,388	10,797	33,111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 운영 : 총 50개소 설치('99년 : 30개소, 2000년 : 20개소)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지원
 - 정책자금 지원('01) : 37,045업체, 9,100억원
 - 금융기관 자체자금 지원('01.4~12월) : 8,470업체, 1,818억원
 - 고용창출 : 29,024업체, 70,713명
 - 고용유지 : 12,533업체, 31,948명
 - 인터넷상담 정보제공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01. 9월)

다. 向後 推進計劃

- 2002년도에는 종전에 구조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지원해 온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구조개선사업 7,000억원 지원과는 별도로 지식기반서비스업 1,000억원 지원
- 소상공인지원센터 10개 센터 추가설치('02년도 하반기)
-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진단지도 실시(1,000개 업체) 및 예비창업자 경영교육 실시
-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 2,500억원 (* 연리 6.25%(변동금리),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16개 금융기관외에 다양한 기관의 참여 유도

2) 中小企業 支援(中小企業技術開發 支援) : 30(03-41-03)-②

가. 指示內容(1999년 7월 1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 중소기업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신속하게 연구개발해 나가는 장점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람
 - ▲ 추가지시
 - 전부처의 연구개발비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늘려 나가야 할 것임.
(2000년 4월 20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시)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지원규모 : '99년 450억 ⇒ '00년 600억 ⇒ '01년 861억원(43.5%↑)
 - 지원업체수 : '99년 845업체 ⇒ '00년 996업체 ⇒ '01년 1,300업체(30.5%↑)
 - 과제당 평균지원액 : '99년 53백만원 ⇒ '00년 60백만원 ⇒ '01년 66백만원(10%↑)
 -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중소기업형 중장기 개발지원과제 발굴
 - 470개 과제를 발굴, 2001년 기술혁신개발사업 추진시 189과제 132억원 지원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 추진
 - 과학기술부,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공공기관 R&D예산중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상향지원
 - '99년 3,397억원 ⇒ '00년 4,358억원 ⇒ '01년 5,147억원(18.1%↑)
 - 시행기관의 전체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공고 실시(48개 사업)
 - 인터넷상에 일괄 안내하여 중소기업 이용도 제고

다. 向後 推進計劃

- 기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확대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2001년 861억원 → 2002년 985억원(14.4%↑)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 총 R&D예산의 5%이상
- 초기단계의 신기술아이디어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을 평가지원하여 R&D사업 성공률 제고(50억원)
 - 기술적 가능성 및 사업타당성 평가 소요비용의 70%를 신규 지원

※ “8·15 경축사 후속대책의 철저한 실천”(276-08-70-27) 및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298-03-70-31)은 동 지시사항에 통합관리중

3) 外國人投資誘致 努力 強化 : 73(03-41-05)

가. 指示內容(1998년 6월 26일, 산업자원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한미투자포럼 후속조치 강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원스톱 서비스기능을 강화
 - ▲ 추가지시
 - 외국인투자 원스톱서비스 체제 정비(1998년 10월 12일, 제47회 국무회의시)
 - 외국인투자 노력의 가속화(1998년 11월 10일, 제52회 국무회의시)
 - 해외기업과의 협조 및 외자유치 노력 강화(1999년 11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시)
 - 해외순방시 외자유치사업의 실현(2001년 4월 16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시)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한·미투자포럼
 - 한미투자포럼 사후관리 전담팀 구성(98.6.20)하여 현지투자자(1,040명) D/B 제작·운영, 투자상담 성과 진전사항 관리, KOTRA Website 확대 및 보완 등
- 외국인투자유치노력 강화
 - 투자사절단 파견 등 투자유치 세일즈 활동 전개
 - 미국, EU, 일본 등에 98년 4회, 99년 3회, 2000년 4회, 2001년 5회의 맞춤형 투자사절단 파견
 - 유망잠재투자자를 초청하는 Red Carpet Service 실시 : 2001년 6회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조직확대 개편(98.7.1) : 1실 3처 12팀, 95명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직접처리민원제, 일괄처리민원제, 자동승인제 도입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권한 부여(98.11.17, 시행)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제도 도입(99.10.26)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강화(00.12.29, 확정·공포)
 - * 외촉법의 개정에서 옴부즈만 임명을 산자부장관에서 대통령 위촉으로 임명 절차 변경
 - 해외투자거점무역관에 투자유치전담관(30명)제를 운영하고, KISC내 지역별 3개팀을 투자유치팀으로 통합·운영(01.12)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99.11.17)과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 확정·공포(00.12.29)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내용
 - * 지적재산권과 주식을 출자목적물의 대상에 추가, 복수형 외국인투자지역제도의 도입 등
 -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시행령 개정, 02.1.1)
 - 1차 외국인투자전자종합시스템 구축(99.7),
 - 2차 사이버KISC 구축(00.7)-외국인투자신고, 접수를 사이버상에서 처리
 - 홍보활동 강화
 - CD-ROM, 비디오 및 성공사례집 등 홍보물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중점홍보대상을 선정하여 수요자별 밀착홍보 및 외국인투자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다. 向後 推進計劃

-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적극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CEO 초청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 외국인투자 유치에 총력을 경주
 - 월드컵 기간중 세계적 다국적기업 CEO 초청사업을 추진하고, 유명 컨설팅사와 연계한 투자매치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여 우량 중소기업의 외자유치 지원
- 외국인투자 제도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선진형 외국인투자유치 체제 정착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01년말 수립)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외국인 경영·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투자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노사관계 안정을 적극 유도

※ “경제회복대책의 실효성확보 노력 강화”(159-03-70-16)는 동 지시사항에 통합하여 관리

4) 對國民 行政서비스改善 등 行政改革 強化 (公企業의 民營化) : 74(03-41-06)-①

가. 指示內容(1998년 6월 26일, 산업자원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공기업의 민영화에 적극 나서 일부 업체는 금년내에 실현하도록 할 것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추진계획

-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등 기업성이 강한 3개 공기업은 완전 민영화 추진
- 경쟁여건 미비 등으로 조기민영화가 곤란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4개 공기업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여 장애요소를 제거한 후 단계적 민영화 추진

□ 추진실적('01.12.31 현재)

- 완전 민영화 대상 3개 공기업은 모두 민영화 완료
 - 포항제철 : 정부 및 산은 지분 26.7%를 해외 DR 및 자사주로 매각하여 민영화 완료('00.9)
 - 한국중공업 : 기업공개를 통한 지분매각, 전략적 제휴, 국내경쟁 입찰을 통하여 민영화 완료('00.12)
 - 한국종합화학 : 남해화학지분 매각, 수산화알루미늄공장 및 남양화성 매각으로 민영화 완료('01.10)
- 단계적 민영화 대상 4개 공기업 중 송유관공사는 민영화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개 공기업도 정상 추진 중
 - 대한송유관공사 : 자회사 흡수통합 및 기존 주주사에 대한 정부지분 매각으로 민영화 완료('00.11)
 - 한국전력 : 정부지분('99.3) 및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매각('00.6),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부문을 6개 발전 자회사로 분할('01.4)
 - 한국가스공사 : 정부지분 매각 및 증자실시('99.12), 자회사인 청열·가스해운 매각('00.11), 구조개편방안('99.11) 및 세부추진방안 확정('01.9)
 - 지역난방공사 : 안양·부천 사업소 매각('00.6),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이라는 민영화 추진 계획 확정('01.1) 및 증시상장을 위한 금융자문사 선정('01.6)

다. 向後 推進計劃

- 한국전력 : 발전자회사 민영화, 배전부문 분할 등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지속적 추진
- 한국가스공사 : 2단계 증자(1,300억원) 및 지분매각, 도입 도매 부문 분할·매각 등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지속적 추진
- 지역난방공사 : 정부 및 한전지분(51%)을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매각하여 민영화 완료

5) 對國民 行政서비스改善 등 行政改革 強化 (傘下機關 整備) : 74(03-41-06)-②

가. 指示內容(1998년 6월 26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산하기관 정비는 기획예산위원회와 협조하여 팔 것은 팔고,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고, 경영혁신 할 것은 경영혁신을 하여 과감하게 추진할 것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추진계획

- 기관 폐지 : 고려무역('98), 석탄합리화사업단(2001)
- 민영화 또는 매각 : 에너지관리공단의 집단에너지 사업('98), 산업단지공단의 열병합발전소('99), 수출보험공사의 해외사무소 4개소('98-'99)
- 경영혁신
 - 경상비 15~20% 절감 : 모든 기관
 - 출연·보조금의 감축 또는 중단 : 모든 출연·보조기관
 - 경쟁체제 전환 : 승강기 안전검사, 전기설비검사(검토)
 - 수수료 인하 : 승강기 검사료, 전기안전 검사료 등 10% 인하
 - 기타 인력감축 등

□ 추진실적('01.12.31 현재)

- 기관폐지
 - 고려무역은 폐지('98.10) 되었으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처리방안은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중
- 민영화 또는 매각
 -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사업 서울시 이관('98.12), 수출보험공사 7개 해외사무소 폐쇄 및 해외공관 매각('98.10) 완료
 - 산업단지공단 열병합발전소는 민영화추진 기본계획을 수립('01.12)
- 경영혁신
 - 경상비 15-20% 감축, 경쟁체제 전환, 수수료 10% 인하, 인력감축 등 당초의 경영혁신 계획대로 모두 완료

다. 向後 推進計劃

- 일부 추진중인 과제는 2002년도 경영혁신 과제에 포함하여 우선 추진하고 수시 점검

6) 高油價 克服을 위한 에너지節約 : 76(03-41-08)

가. 指示內容(2000년 9월 19일, 제18회 국무회의시)

- 고유가 극복을 위해 에너지절약운동 추진과 함께 대체에너지개발 및 해외에너지개발을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함.
- 고유가를 전제로 에너지사용 효율화방안 강구
- 에너지절약시책의 지속적 추진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에너지 저소비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소비구조혁신대책” 지속 추진
 - 자발적협약(VA)체결 확대(2001년 156개 사업장), 총 368개 사업장(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의 47.7%)에 시설개체 및 공정개선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 도모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 활성화(2001년 702건에 1,084억원 투자, 372억원 절감)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열기준 강화(2001.6월) 및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제도』 도입(2001. 8월)
 - 효율등급제도 및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등을 통한 고효율기기·제품 개발·보급 촉진
 - 집단에너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2001년말 106만 세대)
 -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분위기의 확산을 위한 「에너지시민연대」와 「소비자단체」등 본격적인 민간중심의 에너지절약운동 추진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의식 제고
 - 11.12~17까지 『Energy Week』 행사 및 에너지절약촉진대회(11.14) 개최
- 대체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노력 강화
 -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보급 기본계획」 수립('01.3월)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등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2001년 227억원 지원
 - 태양에너지, 풍력분야 성능평가센터, 실증연구단지 선정('01.9)
 -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 시범마을(Green Village) 선정(광주, 대구)
 - 베트남 15-1광구 유전발견 성공 및 베트남, 러시아, 호주 등 해외자원외교 강화

나. 向後 推進計劃

- 에너지저소비형산업구조 기반조성을 위해 “에너지소비구조혁신대책” 지속적 추진
 - 에너지 저소비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발적협약(VA) 및 ESCO사업의 확대
 - 범국민적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을 위해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에너지절약실천운동 전개
- 대체에너지개발 촉진을 위하여 3kW급 태양광발전 시스템, 750kW급 풍력발전기 등을 2004년까지 실용화하고,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 가격보전 실시 및 대체에너지시범마을 조성
- 해외 자원부국과의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및 정부간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진출 지원 및 협력사업 확대

7) 大型事故 豫防努力 強化(徹底한 가스安全對策 樹立) : 152(08-41-11)

가. 指示內容(1998년 9월 15일, 제42회 국무회의시)

- 최근 부천 가스폭발사고 등을 볼 때, 가스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산업자원부장관은 가스관련 시설을 교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철저한 가스안전 대책을 서둘러 수립·추진해 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전국충전소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 및 개선(98.9.14~16)
 - 610개 충전중 345개소가 지적되어 확인점검 결과(98.10.9~16, 99.1.25~29) 344개소 개선완료
- 그린벨트지역에 LP가스충전소 설치허용(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00.7.1 시행)
- 충전소 저장·충전설비의 안전거리 및 검사·교육확대 등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개정·공포(99.3.12 공포, 99.4.1 시행)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배상한도 확대를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99.3.12 공포, 99.4.1 시행)
- 충전소 안전관리자 증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공포(99.6.30 공포, 99.7.1 시행)
- 도심지 충전소 안전진단(안전관리종합평가) 실시(2001.10~11)
- LP가스안전대책 시범실시(2001.1) 및 전국확대 시행(2001.11)
-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등 타공사 사고방지를 위한 배관보호기준 준수대상 확대(법 99.2.8 ; 영 99.6.30 ; 규칙 99.7.1)
- 노후배관교체 추진 830m 구간 완료(2000.10월)
- 도시가스배관망 전산화 추진실적(2001.11월 현재 97.7%)
 - 대상 : 15,515.8km
 - 실적 : 15,161.8km

다. 向後 推進計劃

-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계몽 및 추진상황 평가
- 기존 도시가스배관망 전산화의 지속적인 추진 및 신규 설치되는 배관망에 대해서도 동시에 전산화 추진
 - 도시가스사 : 참빛원주, 참빛영동, 참빛, 참빛충북, 목포, 서라벌

8) 밀라노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推進 : 218(03-41-16)

가. 指示內容(1998년 6월 26일, 산업자원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정보산업만이 벤처산업인 것은 아니므로 섬유·신발산업등도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벤처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할 것
- 이런 관점에서 대구섬유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 ▲ 추가지시
 - 밀라노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1999년 3월 31일, 중소기업특위 국정개혁보고회의)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 육성계획” 수립·발표('98.9.9)
 - 사업기간 : '99~2003(5년간)
 - 소요자금 : 6,800억원(정부 3,670억원, 지자체 515, 민자 2,615억원)
 - 주요내용 : 신제품개발센터 설치 등 17개 사업
- 1~3차년도('99~'01) 17개 단위사업 추진으로 기술, 정보, 물류 등 기본 인프라구축 완료 및 연계지원 시작 (1~3차년도 사업비: 4,667억원(정부 2,749, 지방비 387, 민자 1,531))
 - 신제품개발센터,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등 5개 사업의 건물완공 및 도입시설의 조기설치로 연계지원 실시, 섬유정보지원센터 및 패션정보실의 H/W·S/W 등 기반구축 추진
 - 신제품개발센터(61대 설치, 687건), 염색디자인실용화센터(68대설치, 7,058건), 니트시제품공장설치(해포기 등 32대, 252건) 지원
 - 운영 S/W 구축 및 홈페이지 개통으로 생산, 기술, 마케팅 등의 정보제공 실시(00.10)
 - 대업체 시설개체, 기술자금, 직물비축사업 직접지원 추진
 - 기술개발자금(164과제), 시설개체자금(143건), 직물비축협동화사업(287건) 지원
- 지자체와 정부간의 역할분담 시행
 - 정부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사후평가 등 일반 관리업무를, 지자체에서는 사업자 신청접수·평가·선정업무를 담당토록 역할분담을 실시함
 -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대구시에 산자부 직원파견(과장급 1명)
- 패션·어패럴밸리조성 실시설계 추진(00.12~01.12)

다. 向後 推進計劃

- 4차년도(2002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성공적 목표달성 및 연계지원 활성화 추진 [4차년도 사업비 : 1,295억원(국비 466억원, 지방비 64억원, 민자 765억원)]
- 패션어패럴밸리 조성사업(01.12~03.12,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공사) 추진

9) 貿易收支對策 樹立 : 355(03-41-21)

가. 指示內容(2000년 5월 2일, 제18회 국무회의시)

- 무역수지대책 수립
 - 수입급증에 따른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음. 산자부장관은 무역흑자 달성에 어려움이 없는지 계획을 세워 보고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업종별단체, 무역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각종회의를 통해 최대한의 수출확대 추진
 - 주요수출업체 격려간담회(7.3, 대통령주재), 주요수출업체 산업경쟁력강화 대책회의(5.30, 대통령주재)
 - 수출지원대책회의(3.7, 5.18), 민·관합동수출확대전략회의(6.22), 수출동향점검 간담회(7.16)
 - 무역업체와의 신년간담회(1.12), 미 테러관련 종합상사 간담회(10.16)
 - 종합상사 및 플랜트업체 간담회(2.15), 플랜트업체와의 간담회(4.30, 9.4)
 - 중앙·지방연석 수출확대 대책회의(6.26), 지방수출지원기관 수출확대대책회의(6.28), 지방수출업체 간담회(9회)
 - 품목담당관회의(매월), 수출현장방문 애로점검(매주)
- 중동, 동남아 등에 대한 플랜트 수주 확대(101억불)
 - 고위급 인사의 현지방문을 통한 민관합동 수주지원 : 중동 4개국 순방(총리, 5.6~17), 대 중동 경제협력사절단 파견(장관, 2.1~8), 베트남 민관합동 플랜트 수주단 파견(차관, 2.13~17)
 - 중소형 플랜트 표준 PROPOSAL 제작(15개품목) 및 배포(12.17)
 - 수출보험 이용확대 : 엔화, 유로화에 대해서도 환변동보험 지원대상 확대(01.4), 미 달러화 가치하락으로 인한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 강화(01.9)
 - 플랜트 수출협의회 구성 및 활동을 통한 수주활동 강화 : 협의회 구성(01.3.28), 회의개최(6회)
- 전시회, 박람회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가 및 해외바이어 초청 확대
 - 해외 전시회·박람회참가 지원 확대 : 2,940사 참가(137회), 수출계약액 897백만불
- 에너지절감대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수입절감
 - 자발적 협약 체결 확대 : 2001년말 기준 376개 사업장과 자발적협약 체결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사업활성화 : 2001년 702건 시설개체 등을 통해 372억원 절감
 - 에너지절약 범국민적 실천운동 전개,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효율기기 보급확대
- 수출점검체제 연중가동 : 전체 및 주요품목의 일일수출입실적 파악 및 점검

다. 向後 推進計劃

- 품목 담당관, 업종별 단체, 무역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각종회의를 통해 최대한의 수출확대 추진
- 수출지원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플랜트 수주 확대
- 해외 전시회·박람회참가 지원 확대
- 에너지 수입감소를 위한 에너지절감대책의 강력한 추진
- 수출입상황실 운영 등 수출점검체제를 연중가동하고 업계애로 적극 해소

10) 地域均衡發展 政策의 推進 : 420(03-41-24)

가. 指示內容(2001년 1월 20일,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시)

- 지역균형발전은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 졌으나, 이제는 각 지방이 중심이 되어 IT, BT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 예를 들어 국내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지역별 세부추진사업 평가
 - 시도별 지역산업발전계획 제출(2001.1-2월)
 - 지자체별 세부추진사업에 대한 1차평가 실시(2001.2.28)
 - 세부추진사업에 대한 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실시(2001.5-12월)
- 여론 수렴 및 공감대 확산
 - 「중장기 지역산업발전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2001.2.26)
 - 공청회 : 대전·충청권(9.18-19), 강원도(9.24-25), 대구·울산(9.25-26), 전북도(10.8), 전남도(10.10), 제주도(10.11-12)
 - 시·도경제국장회의 개최(2001.3.13)
 - 지역산업발전계획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방설명회 개최(7회, 2001.3-4월)
- 제도적 기반 마련
 - 용역결과를 토대로 '02년도 예산 600억원 반영
 - 실태조사 : 7.31-8.4
 - 중간결과 점검회의(7.3), 지역산업육성전략 및 예산심의회의(7.4, 7.6, 7.16, 7.18, 7.25, 8.9, 10.15) 및 비공식회의 다수 개최
 - 차관보주재 지역산업진흥용역결과 회의(12.6)
 - 기획예산처와 기협의

다. 向後 推進計劃

- 2002년부터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세부사업(27개, 국비1.1조원, 2002-2006년)의 본격적인 추진
 - 2002년 국비 600억원 지원
- 지역산업 추진 현황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진행 실적을 토대로 차년도 예산 차등 지원
 -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산업 연구개발자금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하여 지원 (지원자금중 1/2은 지역별로 사전배정, 나머지 1/2은 경쟁방식으로 운용)

共通 1) 財界와의 協力強化 : 113(03-70-07)

가. 指示內容(1998년 7월 7일, 제30회 국무회의시)

- 정부는 기업의 수출증진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무역수지 흑자 기반조성을 위한 총력수출체제 운영
 - 주요수출업체 격려간담회(7.3, 대통령주재), 주요수출업체 산업경쟁력강화 대책회의(5.30, 대통령주재)
 - 수출지원대책회의(3.7, 5.18), 민·관합동수출확대전략회의(6.22), 수출동향점검 간담회(7.16)
 - 무역업체와의 신년간담회(1.12), 미 테러관련 종합상사 간담회(10.16)
 - 종합상사 및 플랜트업체 간담회(2.15), 플랜트업체와의 간담회(4.30, 9.4)
 - 중앙·지방연석 수출확대 대책회의(6.26), 지방수출지원기관 수출확대대책회의(6.28), 지방수출업체 간담회(9회)
 - 품목담당관회의(매월), 수출현장방문 애로점검(매주)
 - 일일 수출입점검체제 구축 : 연중 전체 및 주요품목의 일일수출입실적 파악 및 점검
- 무역인프라 확충
 - KOTRA의 해외무역관을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지사화
 - 742개 업체가 1,241개 지사 운영중(01.12월), 2,152건, 232백만불 수출성약
 - 해외 전시회·박람회참가 지원 확대
 - 137회, 2,940사 참가(01.1~12월), 수출상담액 8,966백만불, 계약액 897백만불
 - 전자무역 기반 조성
 - 전자무역지원을 위한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관리규정개정(01.3월)
 - 통합무역정보망 구축(01.2월), 전자무역(e-trade) 종합육성시책 수립 발표(01.5월)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추진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확대
 - 지정요건 완화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요령」 개정(01.2.21), 2,022개업체 지정(01.12월말)
 - 11개 수출지원센터별 수출지원위원회 개최
 - 지역별 수출업체 간담회 개최 : 6개지역 순회(2.28-3.20, 장관), 대전(5.17, 장관), 전주(6.15, 차관), 창원(7.28, 총리), 남동공단(9.18, 총리), 광주(12.13, 총리)
 - 중앙중소기업수출지원 위원회 개최(5.21),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장 회의 개최(8.27)

다. 向後 推進計劃

- 안정적 무역흑자기반 조성을 위한 총력수출체제 운영
 - 종합상사, 업종단체 및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여한 수출지원대책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수출기업의 애로발굴 및 해소 지속추진
 - 수출입상황실 운영 등 수출점검체제를 연중가동하고 업계애로 적극 해소
- 무역인프라 지속적 확충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지속적 추진

共通 2) 訪日 後續措置 徹底 : 157(09-70-12)

가. 指示內容(1998년 10월 12일, 제47회 국무회의시)

- 앞으로 각부 장관은 금번 방일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 경제부처 장관들은 투자·일본수출입은행 차관도입, 무역문제등 경제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착실히 마무리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할 것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제4차 한일민관합동투자촉진협의회 개최: '01.12.14(1차 : '98.12.5, 2차 : '99.12.16, 3차 : '00.11.3)
 - 한일투자협정 조기체결, 투자애로사항 개선, 부품·소재 및 IT분야 산업협력, 한일/일한 교류제 및 월드컵 연계 패션행사 개최, 한·일 지방간 경제교류회의 등 합의
- 무역확대 및 산업기술분야에서의 협력
 - 수출촉진단('01.7, '01.11) 방일 및 한국우량제품전시회(01년중 8회) 개최
 - 아시아테크노페어전시회('01.11,기타큐슈) 및 뉴환경전(01.5, 동경) 참가
 - 토호쿠지역(01.11), 호쿠리쿠지역(01.2), 큐슈지역(01.6)과의 한일 지방간 경제교류회의 및 제1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01.3, 후쿠오카) 개최
 - 큐슈산업기술교류미션단('01.2) 방한, 큐슈자동차부품산업기술교류미션단('01.1) 방일 및 대구-후쿠이산업교류미션단('01.6) 방일
 - 중소기업 생산현장 기술력 향상을 위한 대일기술자연수 및 일본전문가초청지도(연간)
- 「Korea Super Expo」 개최: 01.11.15-19, 오사카 인텍스전시장, 예산 55억원('01년)
- 부품, 전기·전자, 정보산업 등 산업교류 촉진
 - 한일부품소재산업협회의 제1차회의(01.5,동경) 개최
 - 부품소재무역투자사절단(01.6,동경) 방일, 일본투자조사단('01.3, 일본경제유통서비스협동조합) 방한지원, 기계부품소재사절단('01.6) 방일, 자동차부품구매사절단('01.9,서울,부산) 유치, 한일벤처기업투자마트21 개최(01.11, 오사카)
- 한·일 전자상거래 협력
 -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구성('01.2) 및 회의 개최 (1차:01.2 벳부, 2차:01.10 제주)
 - 무역EDI 자동차부품 시범적용 등 합의
- 양국 경제인교류
 - 제3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01.4, 광주) * 제31회(99.4.서울), 제32회(00.6,동경)
 - 제12회 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 회의 (01.10, 치바)

다. 向後 推進計劃

- 제4차 회의 후속조치 추진 및 제5차 한일 투자촉진협의회(02.하반기) 개최
- Korea Super Expo 개최(02.하반기, 도쿄 마쿠하리 전시장)

- 무역확대 및 산업기술분야 협력
 - 한일(큐슈)경제기술교류회의(02.하반기, 가고시마) 개최, 한일(큐슈)산업기술교류미션단(02.1) 파견, 한일(호쿠리쿠) 경제기술교류회의(02.4, 이시가와) 개최, 제5회 아시아테크노페어(02.11, 기타큐슈) 참가
- 부품, 전기·전자, 정보산업 등 산업교류 촉진
 - 한일 부품·소재산업협의체 제2차 합동회의(02. 상반기, 서울)
 - 한일 중소벤처플라자 개최 (02년중 3회)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
 - 제3차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개최(02.상반기)
- 경제인 교류 확대 : 제34회 한일경제인회의(02.4, 일본) 개최

共通 3) 빈틈없는 水害對策 推進 : 264(08-70-25)

가. 指示內容(2001년 7월 16일, 제29회 국무회의시)

- 300mm 이상의 집중호우에 대비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
- 향후 잔여 우기대비 인명피해 예방 및 산사태·옹벽붕괴등 피해방지 철저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산하기관 소관 분야별 안전점검 강화
 - < 전력분야 >
 - 발전소, 전력구·맨홀, 급·배수장, 비상용 발전기 등 52,000여 개소 점검
 - 송·배전선로, 철탑 등 6,100km 점검
 - 해월철탑, 해저케이블 등 태풍 취약설비 사전점검 및 보강
 - 가로등, 신호등 등의 안전취약 전기설비 51,000여 개소 점검
 - < 가스분야 >
 - 향만·가스생산기지·가스공급시설, 충전·저장 등 LPG공급시설, 재난관리대상시설 등 2,300여 개소 점검
 - 침수지역 가스시설 등 50,000여 개소 긴급점검 및 복구지원 실시
 - < 석유·광산·집단에너지 및 산업시설분야 >
 - 광산시설, 지반침하우려 광산지역, 석유비축기지, 집단에너지시설, 산업단지내 침수예상지역 등 취약지, 재난관리대상시설
 - 석유비축기지·공급관로·집단에너지시설 건설현장 및 가스생산시설 공사현장 등 1,900여 개소 점검 실시
- 수해 및 안전사고 우려 시설 조속 보수·보강 (한국전력 등 21개 재난관리기관)
 - 각 기관 및 주요시설 사업주는 집중호우에 대비, 사전 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호우중에도 지속적인 수시점검 실시
 - 염해지역 및 성능저하설비 교체 및 정비 : 145,000여 개소
 - 송·변전설비 교체 및 성능개선 : 전력선 145km, 지지물 14기 등
- 주요 자재·장비·동원인원 등의 사전확보와 정비(한국전력 등 21개 재난관리기관)
 - 자재, 장비, 인력 등의 사전확보 및 수해 발생시 신속동원이 가능토록 적절한 배치
 - 수해우려지역에 대한 장비 및 인력의 적절한 배치
 - 확보가 곤란한 자재 및 중장비 등은 인근 협력업체에서 지원협조 사전협의 강구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유지
 - 신속한 수해상황파악 제공 등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수해 우려지역 및 취약시설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여 관련기관 및 업체에 통보, 지도·관리하고 합동점검 실시
- 수해지역 긴급복구 대응체계 구축
 - 생활 필수분야인 전기, 가스 등 생활시설의 최우선 응급 복구
 - 휴일, 야간 복구, 복구기간 장기화 대비 복구반 운영 및 지원
 - 감전사고 등 지난 호우피해 긴급대응시 도출된 문제점 점검 및 보완

다. 向後 推進計劃

- 전기·가스 등 주요에너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수해취약시설 점검 및 보수·보강 추진

共通 4) 公企業 監査結果에 따른 徹底한 改善 : 386(03-70-45)

가. 指示內容(2000년 9월 19일, 제38회 국무회의시)

- 공기업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여 개선을 추진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추진 계획

- 산업자원부 및 공기업 등 산하기관 지적사항(124건)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00.10. 2)
 - 지적사항 : 총 124건(산업자원부 3건, 38개 산하기관 121건)
- 자체(본부)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조치계획 수립·추진
 - 한국종합화학(주)와 출자회사 존치 부적정 등 3건
- 산하기관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정기점검 및 이행 독려
 - 소관 실·국장 책임하에 조치결과 확인·관리(37개 기관, 97건)

□ 추진 실적('01.12.31 현재)

- 자체(산업자원부)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3건)
 - 한국종합화학(주) 및 출자회사에 대한 해산 결의 및 청산절차 개시('00.11.30)
 - 산하기관별 자율적인 경영평가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차등폭 확대 통보('00. 9. 7)
 - 단계적 추진 대상기관에 조속한 이행 촉구('00.12.18)
 - 석탄 관련 공적기관 기능조정 방안 마련('01. 7)
 - 다만,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처리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계속('00. 6~)
- 산하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 개정추진중 일부 공기업 민영화(포철, 한중 등)로 제외 : 53개 과제
 - 노동부 유권해석 적용으로 제외 : 10개 과제
 - 개선완료 : 54개 과제
 - 추진중 : 4개 과제

다. 向後 推進計劃

- 추진중인 과제의 대부분이 노조합의 사항으로서 노조와의 조속한 협상완료 독려
- 아울러, 2002년도 경영혁신 과제에 계속 포함

共通 5) 公共部門 勞使紛糾에 철저 對備 : 397(03-70-48)

가. 指示內容(2000년 10월 23일, 제43회 국무회의시)

-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사분규가 예상되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
- 중요한 것은 사전에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임
-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불법·폭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됨
 - 원칙을 갖고 대처해 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措置內容

- 공공부문 노사분규 예방을 위해 노사간 협의 노력 강화 유도
 -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전력노조의 파업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회』 개최
 - 2001.1.29~2.21간 3차에 걸쳐 협의회 개최
 - 노사간 쟁점사항 논의
- 전력노조 파업대비 『합동비상대책반』 구성·운영
 - 운영기간 : 2000.11.19~2001.4
 - 역 할 : 파업시 안정적 전력공급 및 종합적 수습대책 마련
- 노사분규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 일시 : 2001.6.8 및 6.29(2회 개최)
 - 참석 : 산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담당과장
 - 의제 : 한국산업단지공단발전소노조 파업동향 및 대책논의
- 차관주재 공공부문 노사분규 대책회의
 - 일시 : 2001.6.9
 - 내용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기술 등 산하기관에 파업 자제·설득
- 공기업 민영화관련 사회관계장관 회의개최
 - 일시 : 2001.12.4
 - 참석 : 국무총리(주재), 법무·노동·산자부장관 등 참석
 - 의제 : 공기업 민영화관련 법안처리 지연에 따른 일부 노조의 민영화반대 활동 강화에 따른 대책 논의
- 노사분규 대비 대책회의
 - 일시 : 2001.12.6
 - 참석 : 노동부(기획관리실장 주재), 산자부, 건교부, 복지부 등 담당과장
 - 내용 :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발전산업, 한국전력기술 등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연계한 노사분규 예방대책 논의
-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 유지(매월)

다. 向後 推進計劃

-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사업 지속 추진
- 공기업 구조조정관련 노조동향 파악 및 대책 수립
-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기반조성
 -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승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근로자 대책 등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共通 6) 國家的 重要技術의 開發計劃 樹立 : 407(07-70-52)

가. 指示內容(2001년 12월 1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 첨단 미래기술이 될 나노기술의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나노기술산업화전략 수립
 - 나노기술산업화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실시(4~6월)
 - 산·학·연 전문가그룹 검토 : 6월중순
 - ‘나노기술 산업화전략’ 수립 완료 : 7.5(목)
- 나노기술산업화위원회 구성
 - 산·학·연 나노기술 전문가 18명으로 구성하여, 나노기술 산업화 정책개발 및 자문기능 수행 (위원장 : 국양 서울대 교수)
 - 7.5(목) 제 1차 회의 개최 : 「나노기술산업화전략」 검토
- 나노기술산업화지원센터 설립
 - 전문분야별로 3개 기관을 나노기술 산업화센터로 지정하고, 협약체결(7월)
 - 전자소자센터(포항공대), 나노소재센터(KIST), 나노공정센터(KETI) 등 3개센터 개소(7월)
- 나노기술관련 차세대신기술사업(R&D) 추진
 - 기획위원회 구성(3월)
 - 나노기술 차세대 기획(3월~6월)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11월)
 - 나노기술기반의 차세대 산업화 핵심요소 기술개발 : 30억/년
 - Electrospinning 및 유무기 혼성기술을 이용한 산업용 섬유제조기술 개발 : 21억/년

<산업자원부 나노기술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이전	2001	2002(전망)	2003~2005(전망)	합 계
정부부처	24,624	24,933	37,367	118,671	205,595
민 간	11,625	14,347	20,933	62,781	109,686
합 계	36,249	39,280	58,300	181,452	315,281

다. 向後 推進計劃

- 나노기술 연구 및 산업화 추진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화인력 양성사업 추진
- 나노기술 연구의 기술기반 구축을 위해, 나노기술 측정 및 표준화 연구개발 추진(5년간 100억원)
- 중소·벤처기업의 나노기술 산업화 연구개발 추진(3년간 40억원)

共通 7) 人事請託 根絶 : 422(08-70-51)

가. 指示内容(2001년 2월 6일, 제6회 국무회의시)

- 인사는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 학연, 친소관계에 따라 이루어 저서는 안됨
- 인사청탁은 해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되며, 공정한 인사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해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内容

- 능력과 업무실적에 따른 객관·투명한 인사행정 실시로 인사청탁근절
 - 각종 승진심사시 다면평가 실시
 - 서기관 13명, 공업서기관 3명 승진(01.9.4)
 - 행정사무관 12명, 기술사무관 6명 공업연구관 3명 승진(01.9.24)
 -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시 서기관 2명, 사무관 3명(01.11.30)
 - 직원별 희망 전공분야·보직을 수시파악하여 인사 등에 반영
 - 7급 신규직원 희망부서 파악(01.3.14)
 - 직원애로 접수 및 희망사항 수시 파악·반영
 - 수습사무관 및 승진사무관 희망부서 파악 및 전보인사에 반영(01.11.30)
 - 2001년 추계 상무관 및 해외직무 파견자 공개모집·선발(01.6)
 - 중국·미국 상무관, ESCAP, UNCTAD 등
 - 2002년 춘계상무관 및 해외 파견자 공개 모집 및 선발(01.10.9)
- 공정한 인사복지 천명 등을 통해 인사청탁관행을 사전예방
 - 장관님 월례조회를 통해 공정한 인사복지 천명
(01. 5, 6, 7, 10, 11월 조회시)

다. 向後 推進計劃

-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으로 인사청탁 근절을 위한 지속적 노력
 - 인사청탁이 적발되면 불이익 조치
- 본인희망·능력 및 업무실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실시

共通 8) 2002年 월드컵大會 準備 철저 : 525(06-70-58)

가. 指示內容(2001년 5월 29일, 제21회 국무회의시)

-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각 부처 스스로 월드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것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월드컵대회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11개 세부추진사업을 발굴하여 차질없이 추진중
 - ※ 세부추진사업 : 서울스포츠레저전(3.21~24), 월드컵유망상품 전시판매장(계속), 일류상품국내전시회(6.1~4) 및 해외로드쇼(5.13~6.1), 월드컵종합박람회(5.23~6.6), 코리아수퍼EXPO(6.19~23), 2002 월드컵패션페어(6.16~22), 서울국제생활용품전(5.20~23), 전자로봇월드컵축구대회(5.23~29), 2002 한일공동패션쇼(5.25, 6.25), 외국유명CEO방한(5.28~6.2)
- 우리 상품의 기술력,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 수출주력상품으로 발전잠재력이 있는 일류상품을 발굴, 국내외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마케팅 지원
 - ※ 현재 총 120개 품목 선정, '03년까지 300개, '05년까지 500개로 확대
 - 237개 밀레니엄상품을 선정하고, 3차례에 걸쳐 특별전시회 개최
- 월드컵관련 수출촉진이 유망한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기술개발·마케팅 지원
 - 현재까지 월드컵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316개 업체(190개 상품)에 기술·품질, 디자인개발 등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월드컵상품박람회 및 월드컵유망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을 통해 판매 지원
- 월드컵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 월드컵 개막식 개최 주간을 「Invest-Korea Week」로 정하고, 50~60인의 주요 외국CEO를 초청,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위해 다양한 투자홍보 프로그램 마련
- 100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월드컵 마케팅 활용방안 설명회」 개최('01.12.13)

다. 向後 推進計劃

- 월드컵대회관련 세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제적이익 극대화
 - 세부과제별 추진현황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방안 도출
- 관련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